

# 동아시아 서머스쿨 2019 모집요강

신청기한 : 2019년 6월 21일(금)까지



최근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에, 상호간의 해외무역 뿐만 아니라 교육연구, 자연재해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경제, 사회사정 등의 기초교양(Liberal Arts)을 배우고, 각국의 공통점과 상의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세대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화하고 상호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일체감을 높여 서로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현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 인사말



제79대 내각총리대신  
동아시아 서머스쿨 명예 학원장  
**호소카와 모리히로**

미래의 동아시아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며, 젊은세대가 대화와 상호교류를 통해 역사와 문화 등 공통성과 상이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나라현은 일본이 국가조성을 진행한 6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수도 '헤이조쿄'를 둔 곳이며,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기술과 문화가 전해져 국가조성을 위한 기초가 다져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나라현이 '역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개최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여러분이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많은 것을 배움과 동시에 미래로 이어지는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현 지사  
동아시아 서머스쿨 명예 학원장

## 아라이 쇼고

2011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국제화 사회에서 동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를 이끌 인재육성과 교류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스쿨의 커리큘럼은 역사·문화, 환경과 의료 등 여러분야에 걸쳐 각 분야에 정통한 강사진의 강의 외에도 나라현의 문화유산을 접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찰연수와 수강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고 성과발표를 하는 등의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활발한 지적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을 낳고, 미래의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현립대학 학장  
동아시아 서머스쿨 학원장  
이토 다다미치

동아시아 각국의 수강생들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동아시아 서머스쿨에서는 수강생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각 분야에 정통한 강사진의 열의 넘치는 강의 등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스쿨을 통해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보장 등 폭넓은 분야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남으로써 국제적인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이지만 그 내용은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서머스쿨에서 경험하는 「지식의 교류」와 「마음의 교류」는 수강생 여러분과 동아시아 각국의 미래에 분명 의미있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 1. 개최개요

실시기간 : 2019년 8월 18일(일) ~ 8월 30일(금) 13일간  
 실시장소 : 나라현립대학(나라시)을 중심으로한 나라현내 각지역과 사원 및 신사 등의 시설  
 주 최 : 나라현 · 나라현립대학  
 모집인원 : 45명 정도  
 수강대상 : 일본국내외 대학생, 대학원생, 지방정부 청년직원  
 참가자격 : 하기 (1)~(3)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자

- (1) (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하고 있는) 대학 또는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을 것
- (2) 일본어로 진행되는 대학수준의 강의를 이해하고, 일본어로 그룹토의와 레포트 작성이 가능할 것
- (3) 전 일정(13일간)에 참가 가능할 것

참가비용 : 무료. 숙박비(조식포함), 점심식사 비용(※자습일 제외), 강의 및 각지역 시찰연수, 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비용은 주최측 부담. 단, 아래 비용은 자기부담입니다.

- 거주지에서 회장까지(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일본국내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나라시내 집합장소까지) 드는 비용(왕복)
- 개최기간 중 저녁식사 비용, 자습일의 점심식사 비용, 개인적인 식비 및 교통비, 기념품 구입비 등

유의사항 : ① 연수기간 중의 도난, 분실, 사고 등에 대해 주최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해외에서 참가하는 수강생은 사전에 해외여행 상해보험 등에 가입(※자기부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개강식 및 환영파티, 수료식 및 송별파티에는 정장차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복장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예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강의와 가정방문(※일반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그대로 체험하며 교류)에도 노출이 심한복장은 자제하는 등 연수 중임을 의식한 복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연수기간 중에 기록을 위해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지나 홈페이지 등에 활용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커리큘럼 개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지역에서 참가하는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아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합니다.

**【학습목표】**  
**동아시아의 '공통성'과 '관계성'을 깨닫고 폭넓은 기초교양(Liberal Arts)을 배운다.**

- 강의

(90분 x 15회)

역사, 문화, 관광, 정치, 사회보장, 환경, 의료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진에 의한 강의를 듣고 지식을 넓혀, 그룹 토론과 성과발표를 합니다.
- 그룹토론

(120분 x 5회)

그날의 강의를 끝난 후, 조력자(Facilitator)의 진행하에 수강생간의 토론, 발표를 실시합니다.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배우고 교류를 돈독히 합니다.
- 시찰연수  
가정방문

(2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나라현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시찰연수와 일반가정의 협력하에 식사 등의 교류를 하는 가정방문 체험을 실시합니다.
- 성과발표  
(프레젠테이션)

소인수로 구성된 그룹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수강기간 중에 토론한 내용을 성과로 발표합니다. 발표한 성과물은 기록지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됩니다.

### 3. 커리큘럼 일정(예정)

1일차	8/18(일)	방일 · 나라현 도착	집합	오리엔테이션①	숙박			
2일차	8/19(월)	오리엔테이션②	점심	오리엔테이션③	개강식	환영파티	숙박	
3일차	8/20(화)	강의	강의	점심	강의	그룹토론	자습	숙박
4일차	8/21(수)	시찰연수①	점심	시찰연수②	자습	숙박		
5일차	8/22(목)	강의	강의	점심	강의	그룹토론	자습	숙박
6일차	8/23(금)	강의	강의	점심	강의	그룹토론	자습	숙박
7일차	8/24(토)	시찰연수③	점심	가정방문 체험	자습	숙박		
8일차	8/25(일)	강의	강의	점심	강의	그룹토론	자습	숙박
9일차	8/26(월)	강의	강의	점심	강의	그룹토론	자습	숙박
10일차	8/27(화)	자 습 일(자유시간)					숙박	
11일차	8/28(수)	성과발표제작	점심	성과발표제작	숙박			
12일차	8/29(목)	발표준비 · 리허설	점심	성과발표회	교류회 수료식	송별파티	숙박	
13일차	8/30(금)	해산(귀국)						

※강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체험

시찰연수

## 4. 참가신청

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 하고 있는 대학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아래 제출서류를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서식파일 첨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모집기간

**2019년 6월 21일(금)까지 ※소인유효**

(2)제출서류 ※①② 서류 모두 **일본어로 기재** 할 것

- ① 주최자가 직접 모집안내 하고 있는 대학, 지방정부로부터의 추천장(별도양식)
- ② 동아시아 서머스쿨 수강생 후보자 개별정보

★전자메일로 신청할 경우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PDF 또는 Excel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3)수령확인 메일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에서 수령한 수, 3일 이내에 전자메일을 통해 수령 확인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4)송부처, 문의처

나라현립대학 동아시아 서머스쿨 사무국  
〒 630-8258 奈良県奈良市船橋町10番地  
E-Mail : summer-school@narapu.ac.jp

※제출서류는 전형 결과에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모집인원

약 45명. 수강희망자가 다수일 경우는 주최측이 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 5. 제출한 서류의 취급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취급】**

수집한 응모자의 개인정보는 이하의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대학에서 적절하게 관리합니다.

- 수강자 전형 및 사업실시를 위해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한 정보 제공과 연락 등을 위해
- 「동아시아 서머스쿨」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 6. 수강결정에 관한 통지

2019년 7월 초순경에 추천받은 대학 또는 지방정부 앞으로 수강 결정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수 실시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므로 수강이 결정된 후의 참가취소를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시아 서머스쿨 2019」 강사소개

## 【교통과 관광】

**이와무라 사토시(전 국토교통 사무차관,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운수성(당시) 입성 후 항공국장 운수정책국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등을 거쳐 2004년 국토교통 사무차관을 지낸 후 2005년 퇴관. 그 후 (재)항만근대화촉진협의회 회장, 게이오기주쿠대학교 환경정보학부 교수, 도쿄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특임교수, (주)손해보험 재팬 고문, 간사이 전력(주) 고문, 간사이 국제공항(주) 이사회 회장을 역임. 현재 (일반재단법인) 환경 우량차 보급기구 회장, (공익재단법인) 교통 에콜로지 모빌리티 재단 회장 등을 겸함.

## 【문화】

**오카모토 아키오(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전 가스가타이샤 부공사)**



1954년 나라현 출생. 고쿠가쿠인 대학교 문학부 신도과 졸업. 가스가타이샤에 봉직. 가스가타이샤에서는 특히 옛날 의식의 부흥에 힘을 쏟았으며, 매년 행해지는 미카구라(御神樂)와 가스가와카미야온마쓰리(春日若宮おん祭)의 오타비소사이(御旅所祭) 등 전례의식을 비롯하여 신에게 바치는 음식인 미케(御饌) 등의 옛의식 부흥, 신사에 전래되는 가구라(神樂)의 맥이 끊어진 곡을 복원하는 산쥬소가쿠(三旬奏樂)의 부흥 등, 신에게 드리는 여러 제사를 복원하고 정기개축(式年造替)에 있어서는 메이지유신 시대에 손실되었던 의식을 1995년 제59차 정기개축에서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복원시켰다. 2016년부터 현직에 재직중.

<주요 편저서> 『야마토 옛 것의 산책』(2000년), 『야마토 옛 것 습유』(2010년), 『신께서 주신 도시락통』(2015년), 『야마토의 보물』(2016년), 『도가입문』(2018년) 등.

## 【사상】

**오구라 기조(교토대학교 대학원 교수)**



도쿄대학교 문학부 독일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단위취득. 전문분야는 동아시아 철학, 한국사상, 한국문화사회론 등. NHK TV·라디오 「한글 강좌」강사. 외무성 「일한우정의 해 2005」실행위원. 「일한 교류 축제」실행위원, 「일한 문화 교류회의」위원 등을 역임.

<주요 편저서>

『역사인식을 뛰어넘다』(2005년), 『창조하는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 니힐리즘』(2011년),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문명>과 <문화>에서 생각하다』(2012년), 『새로 읽는 논어』(2013년), 『조선사상 전사』(2017년).

## 【국제협력】

**기타오카 신이치(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이사장, 공립대학법인 나라현립대학 이사장)**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릿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도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일본정부 국제연합대표부 차석대표,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국제대학 학장,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특별교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룸. 2011년 자수포장(紫綬褒章) 수상. 전문분야는 일본정치외교사.

<주요 편저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일본』(2010년), 『외교적사고』(2012년), 『일본정치의 붕괴 제3의 패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012년), 『관료제로서의 일본육군』(2012년), 『문화개방정책과 일본』(2015년) 등.

## 【교육】

**사토 데이이치(오비린대학교 특별초빙교수)**



1941년 출생. 교토대학교 법학부 졸업. 박사(정책연구대학대학원). 문부성(당시) 입성 후 문화청 차장, 학술국제국장, 대신관방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7년 문부사무차관을 지낸 후 2000년 퇴관. 그 후 같은 해 일본학술 진흥회 이사장, 2003년 일본국 정부 유네스코 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07년 도쿄 국립박물관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참의·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편저서> 『문화와 국제법-세계유산 조약·무형유산 조약과 문화다양성 조약』(2008년).

**【사회보장】**

**시마자키 겐지(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1978년 도쿄대학교 교양학부 졸업 후, 후생성(당시) 입성. 후생노동성 보험국 보험과장,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부속 비교법정국제센터 객원교수 등을 거쳐 2007년부터 현직. 박사(상학). 나가노 현립병원기구 이사, 일본의료·병원관리학회 평의원,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부회위원.  
<주요 편저서>『일본의 의료—제도와 정책』(도쿄대학교 출판회, 2011년), 『의료정책을 되묻다—국민건강보험의 장래』(지쿠마쇼보, 2015년), The Path to Universal Health coverage: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Japan for Policy Actions(JICA, 2013)

**【경제정책】**

**다나카 오사무(재무종합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중국연구교류 고문),  
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특임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신영역연구센터 상석주임조사연구원)**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후, 대장성(大蔵省)에 입성. 박사(학술, 도쿄대학교). 주중국일본국대사관 경제부 1등 서기관·참사관으로 근무. 귀국 후 주계국 주계관, 신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내각부 참사관, 도쿄대학교 객원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부소장, 국제청 세무대학 교장을 역임. 2017년 퇴관 후 현재에 이름. 전문분야는 현대중국경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주요 편저서>『검증 현대중국의 경제정책 결정』(2007년), 『중국경제는 어떻게 변했는가—개혁 개방 이후의 경제제도와 정책을 평가하다—』(2014년), 『스미스, 케인즈에서 피케티까지 세계를 읽는 경제사상 수업』(2015년), 『2020년에 도전하는 중국 초대국의 행방』(2016년), 『일본인과 자본주의의 정신』(2017년) 등.

**【환경】**

**다나카 마사루(교토대학교 명예교수, 모네모리사토우미 연구소장)**



교토대학교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세이카이쿠 수산연구소 연구원, 교토대학교 대학원 농학연구과 교수, 교토대학교 필드과학교육연구 센터장, 말레이시아 사바대학교 보르네오 해양연구소 객원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NPO법인 '모리와 우미노 코이비토(숲은 바다의 연인)'이사, 2011년부터 문부과학성 동북 마린사이언스 거점 형성사업 주사(2016년까지), 2014년 4월부터 모네모리사토우미 연구소장, 2015년부터 NPO법인 SPERA 모리사토우미 이사대행, 2017년부터 (일반사단법인) 전국 일본학사회 이사 등을 맡고있다.  
<주요 편저서>『모리사토우미 연환학의 길』(2008년), 『치어-생존과 변태의 생리생태학』(2009년), 『수산의 21세기』(2010년), 『모리사토우미 연환학』(2011년), 『모리사토우미 연환에 따른 아리아케 해 재생의 길』(2014년), 『모리사토우미를 잇다 (1)생명의 고향 바다와 살다』(2017년), 『모리사토우미를 잇다 (2)여성이 열어가는 생명의 고향 바다와 살다』(2017년), 『생명문명의 시대』(2019년) 등.

**【역사】**

**다나베 이쿠오((공익재단법인) 오사카부 문화재 센터 이사장,  
(일반재단법인)불교미술협회 이사장)**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문학부 졸업. 문화청 미술공예과 주임 문화재 조사관, 도쿄 국립박물관 학예부 고고과장, 나라 국립문화재 연구소 헤이조 궁 유적지 발굴조사부장,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 이사 나라문화재 연구소 소장, 나라현 특별고문,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등 역임. 2015년 가을의 서훈에서 서보소수장(瑞宝小綬章) 수상.  
<주요 편저서>『역사 고고학 대사전』(2007년), 『고대 수도2 헤이조쿄의 시대』(2010년) 등.

**【정보】**

**미노 미치히코(이화학연구소 이사, 전 교토대학교 부이사)**



교토대학교 공학부 정보공학과 졸업. 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교토대학교 공학부 교수,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 객원연구원, 교토대학교 학술정보미디어센터장, 동대학 정보환경기구장 등을 거쳐 현재에 이름. 전문분야는 정보학, 지능정보학.  
<주요 편저서>『정보미디어공학』(1999년), 『화상처리론: Web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2014년) 등.

**【관광】**

**야마다 게이치로(JTIC.SWISS 대표, 나라현립대학 객원교수)**



1965년 미에현 출생. '세계 톱 레벨의 관광 노하우를 각지로 넓혀가는 카리스마'로 내각부·국토교통성(관광청)·농림수산업이 인정(2005년)하는 관광 카리스마. 스위스 체르마트와 발레주정부 등의 관광국의 일본 아시아 마케팅 담당 외에 JTIC.SWISS(일본어 인포메이션 센터 : 1992년 설립) 대표, NPO법인 일본 에코투어리즘 협회 이사(2004년)를 맡음.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이용, 활용을 추진해온 환경 카운셀러(환경성 1996년 사업자 부문, 2003년 시민 부문 등록)이기도 하며, 지역의 힘 창조 어드바이저(2010년 총무성), 지역활성화 전도사(2015년 내각부 관방), 쿨 재팬 지역 프로듀서(2016년 내각부 관방)등 폭넓은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교류】**

**Ranasinghe Nirmala(라나신하 니르말라)(나라현립대학 지역창조학부 강사)**



스리랑카 출신. 박사(관광학) 릿쿄대학교 관광학 박사과정후기과정 수료. 도쿄외국어대학 비상근 강사 등을 거쳐 2017년도부터 나라현립대학 전임교원으로 근무.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과 주로 관광지를 만남으로 하는 국제결혼·국제이주, 다문화교류에 착안한 연구가 전문.

**【국제정치】**

**이종원(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교수, 와세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장)**



한국 출신. 도쿄대학교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 졸업(법학박사). 전문분야는 국제정치학,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도호쿠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릿쿄대학교 법학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객원 연구원, 아사히 신문 아시아 네트워크 객원 연구원 등을 역임하여 현재에 이룸. <주요 편저서 등>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1996년, 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미국 역사가 협의회 외국어 저작상 등 수상), 『전후 일한관계사』(2017년), 『동아시아 화해의 길』(2016년), 『국제정치에서 생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2012년).

**【동양의료】**

**와타나베 겐지(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객원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의학부 졸업. 의사·의학박사. 나라현 고문, 가나가와현 고문.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의학부 내과, 도카이대학교 의학부 면역학교실 조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유전학 교실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기타사토 연구소(현 기타사토대학교)동양의학 종합연구소,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의학부 동양의학 강좌(현 한방의학센터) 준교수, 환경정보학부 교수·의학부 겸임교수, 대학원정책·미디어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룸. 일본내과 학회 내과 전문의,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WTO국제 질병 분류개정 위원, 한방산업화 추진연구회 이사장 등을 겸함.

**【비교문화】**

**왕 민(호세이대학교 교수, 국립신미술관 평의원)**



비교문화학, 국제일본학, 미야자와 겐지 연구. 미야자와 겐지를 비롯한 일본의 걸작을 중국어 번역·소개 함과 동시에 『홍루몽(紅樓夢)』 등 중국 명작의 번안을 100여권, 일본에서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치수신(治水神) 우왕(禹王) 신앙의 현존형태 및 실크로드 문화, 저우언라이와 같은 중국 지도자의 일본유학에 관한 조사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 2009년 문화 장관표창. <주요 편저서> 『우왕과 일본인』(NHK BOOK), 『저우언라이들의 일본유학』(산와 서적), 『일본과 중국』(중공신서) 등.

## ~「동아시아 서머스쿨」참가자로부터의 메시지~

저는 대학 입학 전부터 서머스쿨에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13일간의 한중일 역사와 정치, 전통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을 하는 중에 각국의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성과발표로 한중일 불상에 대해 조사하고, 제한된 시간때문에 수면시간을 줄여가며 준비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발표를 완성했을 때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달성감을 느꼈습니다. 서머스쿨 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13일간 힘들었지만 매우 충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친해졌 듯이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국제교류가 더욱 깊어졌으면 합니다.

【이노우에 미호(일본 : 기오대학)】



제가 서머스쿨에 참가한 이유는 유학을 희망하고 있었고, 유학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떨렸지만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사람들과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시찰체험에서는 나라현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새롭게 나라현의 좋은 점, 일본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머스쿨 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머스쿨에서 체험한 것과 일본과는 다른 관습, 문화, 역사, 세계에서 보는 일본을 확실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히가키 마이(일본 : 나라대학)】



2주間に 걸친 서머스쿨은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나라에 모여 문화와 정치 등 여러 분야의 강의를 듣고 상이점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강의가 끝난 후 팀원들과 의논하고 발표의 준비를 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강의 이외에도 도다이지 절 시찰과 일본인 가정집을 방문하여 체험한 것도 정말로 좋았습니다. 일본 가정집에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어가 서툰 제 이야기를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이후로도 계속 연락하며 교류하고 싶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Kang Lili(중국 : 상해사범대학교)】



서머스쿨에서 저는 매우 양질의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살아있는 지식이란,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닌, 다양한 질문에 대해 활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질문을 낳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서머스쿨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배운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토론의 깊이도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머스쿨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머스쿨에 참가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리카와 슈시(일본 : 미야기대학)】



참가자에 좋은 기획이었고, 저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서머스쿨은 여러분과 친해지기 쉽고, 귀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열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이상의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꼭 참가해보세요!

【김민환(한국 : 동양대학교)】



서머스쿨을 계기로 역사와 문화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수강생과 토론하고 함께 자료를 모아 성과발표를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그룹 모두와 마음을 담아 작성하고 팀워크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세계유산인 도다이지 절과 도소다이지 절의 시찰, 일본인 가정집 방문도 즐거웠습니다. 담당 호스트 패밀리분들은 친절하셨고 모두들 기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서 일본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함께 걸어서 통학한 덕분에 일본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2주간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연수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Li Ssu-yin(대만 : Kainan University)】



눈 깜짝할 새 13일이 지났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귀중한 강의를 듣고, 도다이지 절과 만요 문화관 등의 시찰체험을 통해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의 친구와 교류하고 놀러가고 많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어질 때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지탱해준 모두들 덕분에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제 「一期一会(일생 단 한번의 인연)」이었습니다. 서머스쿨에 참가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정진하겠습니다.

【Tran Thi Thom(베트남 : 시즈오카현립대학교 유학생)】

